

한국산 미기록속 *Anteromorpha*의 보고 (별목: 검정알벌과)

최준열, M. A. Kozlov¹, 권기면

농업과학기술원 작물보호부 농업해충과, ¹러시아과학원 동물연구소

검정알벌과는 알기생봉종의 한 분류군으로서 곤충이나 거미의 알에 기생하며, 후절 마디의 길이비, 측등판의 유무, 시맥의 형태, 홑눈의 위치 등을 이용하여 분류하고 있다.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는 한국곤충명집의 2아과 18종을 비롯해 25종이 기록되었고, 이외에 본 저자들에 의해 9종의 신종과 2종의 미기록종이 발표되어 총 36종이 분포하고 있다.

농업과학기술원 표본실에 소장된 검정알벌과 표본을 대상으로 분류한 결과, 새로 확인된 한국 미기록속 *Anteromorpha*에 속하는 1종을 미기록종으로 보고한다.

Anteromorpha frequens (Priesner) 가리마검정알벌 (신칭)

*Anteromorpha*는 머리가 사각형에 가까우며 이마에 침강부분이 없거나 얇고, 겹눈에 털이 나 있다. Skaphion은 없으며, notauli는 없거나 희미하고 후흉등판 중앙이 삼각형에 가깝게 신장되었으며, 날개의 연문맥은 후연맥에 가깝다.

*A. frequens*는 머리가 옆으로 넓적하고 이마에 얇은 침강 흔적이 있으며, 이마의 털이 앞에서 볼 때 양쪽으로 갈려 있다. 날개의 중앙이 착색되었고 앞날개 전연맥이 연문맥보다 매우 짧다.

이에 따라 한국산 검정알벌과는 총 3아과에 37종으로 정리된다.